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아동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방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황 재 욱

2007년 8월

# 아동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방법 연구

지도교수 심 희 정

황 재 옥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5月

황재옥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年 6月

<국문초록>

아동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방법 연구

황 재 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심 희 정

음악교육은 음악의 심미적 체험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음악성을 개발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다. 특히 발달정도가 빠르며 예술적 재능과 조화로운 인격형성의 기초가 확립되는 아동기의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아동기의 바른 음악교육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적 음악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것을 스스로 느끼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논문의 방향을 두었다.

본 연구는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아동기 피아노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초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과 피아노 학습의 목적, 음악교육자들의 음악교육방법과 기초교육 방법연구에서 교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 피아노 학습장의 시설과 환경, 피아노 교육을 위한 학습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6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입문기 아동들로 한정하여 연구의 제한을 두었으며, 초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준으로 다루었다. 그 이유는 6-7세 때부터 인지적으로 뚜렷한 발달을 보여서 소리를 기억할 수 있고 또한 아동들의 경우, 본격적인 학습보다는 기초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의 학습이 계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행해졌던 교육이 교사의 경험에만 의존하였던 일방적인 교수법이였다면 단순히 악보만 읽으며 손놀림이 능숙하게 될 때까지 반복하는 단순 기능 위주의 교수법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내적인 음악성과 외적인 훈련을 겸한 지도 방법을 통해서 아동들의 포괄적인 음악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수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피아노 음악교육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개발하여 음악교육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논문, 「아동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방법연구」를 통하여 음악교육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피아노 실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II. 이론적 배경 .....	3
1. 피아노 교육의 일반적 고찰 .....	3
1) 피아노 교육의 중요성 .....	3
2)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 .....	5
3) 작곡가의 조기교육사례 .....	10
2. 음악 교육가들의 음악교육방법 .....	14
1) 달크로즈 .....	14
2) 오르프 .....	18
3) 코다이 .....	22
III. 피아노 기초교육 방법 연구 .....	29
1. 피아노 학습의 목적 .....	29
2. 교사의 역할 .....	31
3. 부모의 역할 .....	32
4. 피아노 학습지도상의 유의점 .....	33
5. 피아노 학습장의 시설과 환경 .....	35
6. 피아노 교육을 위한 학습내용 .....	36
1) 피아노 학습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와 학습시간 .....	36
2) 첫 레슨 .....	38
3) 리듬학습을 통한 피아노 지도 .....	41
4) 가창을 통한 피아노 지도 .....	46

5) 타악기를 이용한 피아노 지도 .....	48
6) 감상지도 .....	49
7) 청음 · 시창학습을 통한 피아노 지도 .....	49
 IV. 결 론 .....	 54
참 고 문 헌 .....	57
Summary .....	57



## 표 목 차

표1.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	9
-------------------------	---

## 그림 목 차

그림1. 코다이의 리듬기호 .....	25
그림2. 박자감의 지도 악보 .....	25
그림3. 코다이의 계명 .....	27
그림4. 코다이 손 신호 체계 .....	28
그림5. 높낮이에 따른 음표 머리 적기 .....	52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음악교육은 음악의 심미적 체험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음악성을 개발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다. 특히 발달정도가 빠르며 예술적 재능과 조화로운 인격형성의 기초가 확립되는 아동기의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의 음악교육은 그 영향이 평생토록 지속되며 음악의 방향의 지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의 올바른 음악교육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적 음악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것을 스스로 느끼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동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적 능력과 표현력을 발전시켜 미적 감각과 감수성을 기르게 되어 올바른 음악적 정서를 수반한 심미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음악의 3요소를 한 악기로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악기는 실로 피아노이며, 피아노야말로 실질적인 독주를 할 수 있는 악기이고 한편 반주악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피아노는 종합적이고 음악적인 세계를 집약하고 있으며 피아노 학습은 음악의 전 영역에 걸쳐서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아노가 아동기에 중요한 음악교육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악기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피아노는 악기구조상 현악기나 관악기에 비하여 건반이 있어 음을 시각화하여 아동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거나 손가락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동들의 근육공동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악기와 비교해 볼 때 음역(音域)으로 보아 어떠한 악기보다도 넓으며 모든 악기를 종합한 광범위한 음역을 포함하고 있고 그만큼 표현 범위가 넓다.

둘째, 피아노는 다른 악기와 비교해 볼 때 음정이 고정되어 있고 반음계까지 쉽게 음을 식별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이 음을 내는 데 별 무리가

없으며 양손과 페달 등을 동시에 사용하여 가락, 리듬, 화음, 다이내믹 등을 표현해야하므로 아동의 음악적 감각을 터득하고 지적 능력의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피아노 학습은 모든 음악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에 받은 적합한 피아노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음악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할 뿐만 아니라 피아노 연주와 훈련을 통하여 인내심, 지구력을 기르게 됨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음악적 재능과 소질을 발견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더욱 더 풍요롭게 가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피아노 교육은 이제 음악교육의 주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진정한 피아노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기술습득과 보여주기 위한 전문교육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피아노 학습을 통해서 음악적인 심성계발과 전인교육의 밑바탕으로 올바르게 정서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피아노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동들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 교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6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입문기 아동들로 한정하여 연구의 제한을 두었으며, 초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준으로 다루었다. 그 이유는 6-7세 때부터 인지적으로 뚜렷한 발달을 보여서 소리를 기억할 수 있고 또한 아동들의 경우, 본격적인 학습보다는 기초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의 학습이 계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와 관련하여 아동기 피아노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문헌을 바탕으로 피아노의 아동기에 대한 음악적 특징과 음악교육자들의 음악교육방법등을 살펴봄으로서 피아노 교육의 실질적인 방법과 학습내용을 터득하고 문제의 해결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피아노 교육의 일반적 고찰

#### 1) 피아노 교육의 중요성

음악 학습을 피아노만으로 하여야 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우리들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文字)라는 구체적이고 구상적(具象的)인 표현력을 지닌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악도 가능하며, 관악이나 현악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피아노가 보다 기초적이고, 종합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피아노는 첫째, 음역(音域)<sup>1)</sup>으로 보아 어떠한 악기보다도 넓으며 파이프 오르간(Pipe-Organ)을 빼고는 모든 악기를 종합한 광범위한 음역을 한 악기에 이식(移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표현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이다.

둘째로 피아노는 고정(固定)악기라는 점이다. 성악이나 Violin처럼 음정을 제각기 만드는, 즉 작음(作音)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틀림없이 정한 곳만 치면 테크닉의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에게도 같은 음이 난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대중성이 있고 노력만으로도(소질 여하보다도) 어느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음악의 3요소를 한 악기로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악기는 실로 피아노이며, 그러므로 피아노야말로 실질적인 독주를 할 수 있는 악기이고 한편 반주악기가 되는 것이다(small-orchestra). 이 악기가 이처럼 종합적이고 음악적인 세계를 집약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천재들이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아노 학습은 음악의 전 영역에 걸쳐서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sup>2)</sup>

또한 피아노 교육은 이제 음악교육의 주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학생

1) 音域(compass-range)

a) 악기나 인성(人聲)으로 낼 수 있는 음의 범위

b) 음조직이나 악기 등의 상하 전음역 중 어떤 일정한 구역을 가리킨다. 보통 높은 음역, 중간 음역, 낮은 음역으로 구별한다.

2) 박찬석, 「피아노 교수학」,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pp.71-72.

들이 피아노 교육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전문적인 음악인이 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자기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아동기의 음악교육이 ‘미적 감수성과 음악적인 심성의 소유자로서 평생토록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성장’ 이란 목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 피아노 교육은 음악의 모든 분야에서 바탕이 되고 음악적인 표현에 있어서 고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피아노는 악기구조상 현악기(絃樂器)나 관악기(管樂器)에 비하여 건반(鍵盤)이 있어 음을 시각화하여 아동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거나 손가락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동들의 근육공동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sup>3)</sup>

또한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일정한 고정음(固定音)을 통해 아동에게 절대음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아노는 고정음의 악기로 음악 훈련의 조기 교육(早期教育)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피아노만이 갖는 폭넓은 음역과 악보를 통한 건반의 이해가 가장 용이한 점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서 각 학생 나름대로의 음악적 표현을 용이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피아노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손가락 훈련으로 두뇌가 좋아진다는 과학적 검증으로 인해 두뇌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또 아동들이 교육이나 취미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피아노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감수성이 가장 민감한 유년기의 지능개발과 함께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정신과 신체적 성장을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격형성(人格形成)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즉, 전인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sup>4)</sup>

따라서 피아노를 활용하여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sup>5)</sup>

첫째, 피아노는 음악에 대해서 깊은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음악의 여러 가지 표현 활동을 풍부하게 하며 악보에 관한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

3) 성진희, 「음악을 배우며 즐거움을 얻는 건반 경험 프로그램」, 「음악교육」(1994년 5월), p. 57-58.

4) 윤화경, “피아노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지도방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p.6.

5) 박찬석, 「올바른 피아노 교육」, 서울 :세광출판사, 1985, p.93.

둘째, 정확한 음악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다른 악기에 비해 도중에 음높이가 변하는 일이 거의 없고 중음을 낼 수 있는 악기이므로 여러 화음까지도 학습할 수 있다.

셋째, 피아노는 건반 독특한 아름다운 소리를 소유하고 있어 어린이의 계발지도나 음정(音程), 음계(音階)지도를 통한 가창지도나 합창지도에 도움을 주며 표현활동에 있어서는 음악활동의 전체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넷째, 음악학습의 배경이 되는 악보에 관한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그것은 장조나 단조들의 음계, 원음(原音)과 사이음과의 관계, 올림표나 내림표 등 어린이에게 곤란함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직접 건반을 만지고 귀로 들으면서 이해시킬 수 있는 시·청각 양 측면에서의 이해를 흥미 있게 학습시키는데 도움을 준다.<sup>6)</sup>

위의 4가지 관점에서 피아노 교육이 음악교육에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음악을 느끼고 사랑함에 따라 감수성이 발달되고 아동 스스로 피아노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흥미와 자아성취 욕구로 인한 동기유발이 될 때 지속적인 음악적 성장과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설립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동기 피아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sup>7)</sup>

## 2)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

아동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미숙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며 비사회적이기는 하나 발달 속도가 빠르며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조기 음악교육은 아동의 창의력 개발과 개성적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6~7세 사이에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보통이나 좀 더 이상적인 음악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다. 유아기는 생후 5개월에는 청각이 발달하여 음향분별을 할 수 있게 되며 3~4세 또는 그 이전에 지능이 많이 개발된다. 따라서 어린이의 감수성이

6) 허순식, “음악성 개발을 위한 기초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교육대학원, 1998, p13. 재인용.

7) 방금주, 「어린이 피아노 교육의 목표」, 「음악교육」, 1986, p.36.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지능계발과 음악적 체험은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자극하여 음악교육의 든든한 기초를 이루어주며 또한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sup>8)</sup>

#### (1) 신체적(身體的) 성장과정

유아(幼兒)의 신체발달 단계는 다음과 같다.

4세가 되면 손끝운동이 발달하여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4~5세가 되면 청음감각(淸音感覺)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로 절대음감(絶對音感)에 대한 감각과 아름다운 음에 대한 감성을 길러주어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흥미를 일으켜 음악에 대한 사랑을 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5세와 6세가 되면, 피아노의 양손 연주(演奏)가 가능해지며 청각능력(聽覺能力) 또한 급격히 발달하게 된다.

6세정도가 되면 시간감각(時間感覺)이 생기게 되므로 음고(音高)의 분별력이나 리듬감이 급속하게 발달하게 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신체적 발달이 급성장하면서, 악기나 노래 등을 통하여 음악적 표현을 좀 더 느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라 하겠다.

7세가 되면 손가락 운동이 대단히 빨라져 테크닉(Technique) 습득이 용이해지며 악보독보(樂譜讀譜) 습득도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듯이 아무리 좋은 교육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적(身體的), 정신적(精神的)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은 그 효과가 효율적(效率的)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을 적절하게 시켜서 효율적(效率的)인 교육이 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sup>9)</sup>

#### (2) 심리적(心理的) 인지발달 과정

유아기(幼兒期) 음악교육(音樂教育)의 교육적 의미는 유아기에 전반적인 교육의 중요성과 연결되어진다.

8) 범영숙,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육」, 삼호뮤직, 2003, p29.

9) 정윤숙, “조기(早期) 피아노교육의 효율적(效率的)인 지도방안”,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1986.

인간의 모든 감각이나 기능은 유아기에 급속히 발달한다. 특히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sup>10)</sup>의 인지발달론이 음악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미국의 여러 음악학자들이 피아제의 인지발달론과 음악능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이 행해진다는 사실은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이 아동(兒童)의 음악교육(音樂教育)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는 4단계로 구분 지어진다.

① 감각 운동기(Sensorimotor Period: 출생~2세) : 행동적(行動的) 단계와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감각적(感覺的)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자신의 감각이나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빠는 등의 운동을 통해서 주변을 탐색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기 위해서 운동능력을 사용하고자 애쓰는 시기로 간단한 지각능력이나 운동능력이 이 시기에 발달한다.

② 전 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 2~7세) : 영상적(影像的) 단계와 관련이 있으며, 감각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시기이다. 개념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 활동과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이 시기의 판단은 언어화되지 않은 모호한 인상이나 지각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③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 7~11세) : 영상적(影像的) 단계와 관련이 있는 시기로 구체적 사물에 의한 교육을 하는 시기이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 사고(論理的 思考)가 가능한 시기로 특정사실에 따라 사물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④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 11~15, 16세) : 상징적(象徴的) 단계와 관련이 있는 시기로 현실적 세계를 넘어서서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다.<sup>11)</sup>

특히 피아제는 어린이의 인지(cognition)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아동발달이론과 교육의 실천적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sup>12)</sup>

---

10) 피아제 (Jean Piaget, 1896~1980): 스위스의 아동발달 심리학자, 어린이의 정신발달, 특히 논리적 사고 발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인식론의 제반 문제를 추구, 정신병 환자의 임상진단방법을 응용하여,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린이의 사고과정의 하부구조를 밝힘.

11) 양용철 외 7명, 「교육학 개론」, 중앙적성출판사, 1997, pp.114~117.

12)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p.70.

이에 따른 합리적인 단계적 교육을 위하여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지능은 성숙적이거나 환경적 작용에만 의해서 자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능동적이며 조직적 활동에 의해서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피아제는 아동의 능동적으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음악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음악 활동을 통한 교육, 즉 어린이로 하여금 자발적, 자주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음악 교사로 하여금 아동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즉, 교육과정은 어린이의 계속되는 지적 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이 어린이의 개념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학습은 비효과적이 될 것이므로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셋째, 음악의 기본적 개념을 어느 때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피아제는 아동의 수, 장소, 인간관계와 같은 개념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획득되고 발전되어 가는가의 과정을 밝혔다. 이것은 음악의 어떤 개념을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피아제는 주로 유아기 아동발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조기교육에 의해서 발달 단계에서의 질적 내용이 풍부해 진다고 주장하여 음악의 조기 교육이나 영재교육, 유아 교육이 교육과정 개발과 지도방법의 창안 및 자료 활용에 큰 도움을 주었다.

아동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인지 능력 발달 단계에 맞춰 학습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아동들이 음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며, 배우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음악교육은 이러한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의 내용과 단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단계를 무시한 학습은 학습 효과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아동의 인지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 의한 음악 학습단계는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표1>과 같다.<sup>13)</sup>

13) 유기섭, 「교육심리학」, 서울 : 동문사, 1993, p.63.



표1.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단 계	연 령
감각운동단계 (sensorimotor stage)	0 ~ 2세
전조작 단계 (preoperational stage)	2 ~ 7세
구체적조작 단계 (concrete operational stage)	7 ~ 11세
형식적조작 단계 (formal operational stage)	11 ~15세

6~10세의 아동은 거의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s Period)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인지적으로 뚜렷한 발달을 보일 뿐 아니라 감정의 면에서도 폭넓게 성숙하기 시작한다. 7세경의 아동들은 음악의 셈여림, 음색, 빠르기를 구별할 수 있고 화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왕성해지므로 리듬과 멜로디의 공부는 이 기간 동안이 가장 중요하다.

8~9세는 음악적 능력의 기반이 마련되는 결정적 시기이다. 따라서 청감각도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며, 또 수(數)개념이 9세에서 점차 발달하여 10세에서 급속히 발달<sup>14)</sup>하기 때문에 음계 및 음표의 활용이 용이하고 손의 근(筋)감각과 손놀림이 발달하여 무리 없이 피아노를 다룰뿐더러 음악에 대한 기호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아동들의 청 감각을 자극하는 음악놀이나 악보읽기 및 쓰기 등과 함께 피아노 학습에 필요한 음악적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피아노 학습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0~11세 경이 되면 아동들은 집단에의 소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악적으로는 화음 감지력(感知力)이 크게 향상된다.<sup>15)</sup> 따라서 중창이나 중주활동, 합창, 합주 활동이 권장되며, 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을 심리적, 음악적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14) 이용일, 「음악교육학 개설」, 서울 : 현대악보출판사, 1989, p.33.

15) 이홍수, 전제서, p.79.

어린 시절부터 습득하게 하여 아동 스스로가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작곡가의 조기교육사례 <sup>16)</sup>

#### (1) 바하(Johann Sebastian Bach, 1685 ~ 1750)

근대 서양음악의 아버지로서 당대 제일의 오르가니스트이며, 불후의 작곡가인 바하는 일찌기 음악교육을 받았으며(그의 가계는 대대로 음악가였다), 15세 때는 미하엘 학교의 합창대원이었고, 18세 때에는 교회의 전속 오르가니스트였다. 바하는 음악 가계 덕분에 유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아왔다.

#### (2) 헨델(Georg Friedrich Handel, 1685 ~ 1759)

바하와 같은 해에 태어나서 많은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나타냈다. 한편 그의 부친은 헨델로 하여금 법률가로 입신케 하기 위해 피아노 공부를 반대했으나, 헨델의 끈질긴 집념으로 다락방에 숨어서 피아노를 연습했다는 고사(故事)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니 헨델이야말로 조기 교육의 본보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라모(Jean Philippe Rameau, 1683~1764)

고전화성학의 완성자인 그는 음악가인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부친은 사원(寺院)의 오르가니스트였으며 그의 주장이 “어린이에게는 문자를 가르치기 이전에 음악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라모 역시 조기 교육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 (4)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 ~ 1791)

신동(神童)으로서 음악사에 영원히 찬연한 그는 4세 때부터 피아노 학습을 시작했고 6세에는 궁정(宮廷)에서 공개 연주를 해서 절찬을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신동(神童) 모차르트 역시 조기 교육의 본보기이다.

#### (5)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 ~ 1827)

인간 고뇌(苦惱)를 극복하고 환희경(歡喜境)에서 인간 최고의 예술의 금자탑을 세운 고전과 음악의 대가이며 낭만과 음악의 선구자이고 피아노 음악에 관현악의 세계를 이식(移植)한 소나타 형식의 구사자(驅使者)이며 완성자인 그는 영웅

16) 박찬석, 「피아노 敎授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p.26.

적인 인간이며 음악의 성자(聖者)이기도 하다. 그는 어렸을 때 부친의 숙된 제물이 되어 신동 모차르트의 재출현을 강요당했다. 그래서 4세 때부터 하루 4, 5시간씩이나 피아노 연습을 해야 했다는 고사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11세 때 벌써 극장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과 수많은 공개 연주(즉흥연주 포함)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도 신동 모차르트에 못지 않은 조기 교육의 표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 ~ 1828)

가곡의 왕이며 낭만과 음악의 중심 인물인 그는 9세 때 왕실예배당의 소년가수로서, 또 국립 신학교에서 일반교육 및 음악교육을 받았고, 13세 때 작곡을 발표했다. 그리고 즉흥연주를 포함한 많은 연주를 통해서 세인을 놀라게 했다. 조기 교육의 본보기이다.

(7) 슈만(Robert Schumann, 1810 ~ 1856)

슈베르트와 더불어 낭만과 음악의 대가인 슈만은 7세 때 피아노를 배웠고 10세 때에는 피아노곡을 위시해서 상당수의 작품을 썼다고 한다. 또한 많은 즉흥연주의 기록이 있다. 이 또한 조기 교육을 받은 영재이다.

(8) 리스트(Franz Liszt, 1811 ~ 1886)

피아노 음악의 귀재(鬼才)로서 바이올린의 파가니니처럼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피아노 음악에 기술적인 면을 극한대(極限大)로 확대시킨 그는 부친이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에 상당히 정통했던 관계로 6세 때부터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웠으며 9세 때에는 공개 연주를 해서 절찬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9) 쇼팽(Frederic Francois Chopin, 1810 ~ 1849)

낭만과 음악의 거장이며 음시인(音詩人)이라고 불리우는 그는 9세 때에 공개연주를 해서 성공했다는 기록과, 18세 때부터는 피아니스트로 자립해서 각지를 연주 여행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가 조기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0) 무소르그스키(Modest Petrovich Musorgskii, 1839-1881)

음악가인 어머니로부터 피아노의 초보지도를 받고, 유모로부터 민화를 들으면서 자랐다. 이리하여 그는 한꺼번에 서구의 음악문화와 러시아의 민족성이라는 두 근원에서 양식을 얻었고, 9세 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필드의 협주곡을 연주

할 정도로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었으며 조기교육의 본보기가 되었다.

(11)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 ~ 1924)

10세 때 루카의 어느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로 있으면서 악재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G. 베르디<sup>17)</sup>의 아이다(Aida)를 듣고 나서부터 작곡가가 될 것을 결심했으며 그 후 많은 오페라 등을 발표한 푸치니 역시 조기 교육의 본보기가 되었다.

(12) 말러(Gustav Mahler, 1860 ~ 1911)

10세 때 피아노 리사이틀을 처음으로 열었고, 15세 때 빈음악원을 졸업한 후 1880년부터 지휘활동을 시작하는 등 다채로운 음악활동을 펼친 그는 어린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은 조기교육을 받은 음악가 이다.

(13) 시벨리우스(Jean Sibelius, 1865 ~ 1957)

9세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15세 때부터는 바이올린과 작곡법을 배워 이 무렵부터 점차 음악적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족들은 음악가가 되려는 그의 희망을 반대하여 1885년 헬싱키대학에 입학, 법률을 전공하는 사이사이 헬싱키음악원에서 음악이론과 작곡을 배웠으며, 시벨리우스는 본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뜻을 품었으나 무대에 서면 상기하는 성격 때문에 연주를 단념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내성적인 성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는 92년 모교 헬싱키음악원의 작곡과 바이올린교수가 되고, 1897년에는 국가에서 종신 연금을 주기로 하여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7개의 교향곡 외에도 많은 교향시·바이올린협주곡 등이 있으며 그는 조기교육을 받아 더욱 음악창작을 위해 헌신한 음악가이다.

(14) 라흐마니노프(Rakhmaninov, 1873 ~ 1943)

러시아의 작곡가·피아니스트·지휘자인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피아노의 기초를 배우고 그 후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배웠다. 1909년 미국에 건너가 피아니스트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후 귀국 후 모스크바에서 지휘자를 역임하였으며, 그는 대표적인 조기교육의 음악가이다.

(15) 레스피기(Respighi Ottorino, 1879 ~ 1936)

17) 주세페 베르디(Gi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 1813~1901): 이탈리아 북부 파르마현의 레몬콜레에서 태어남, 마을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한테서 초보교육을 받고 밀라노에서 본격적으로 음악공부를 했으며, 1871년 아이다 스에즈운하 개통 기념 카이로 오페라극장 초연.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그는 어렸을 때 음악가인 아버지로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기초를 배우고, 블로냐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비올라·작곡을 배웠다. 그는 기악분야에서는 이탈리아의 전통과 근대적인 관현악법에 알맞은 이탈리아 악기의 부흥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16) 벤자민 브리튼(Edward Benjamin Britten, 1913 ~ 1976)

영국의 작곡가인 그는 어릴 때부터 악재를 나타내어 9세 때 최초의 현악 4중주곡을 썼으며 12세 때부터 작곡을 공부하였다. 그의 작품은 기법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색채적인 관현악법과 표출력에 감각적인 날카로움을 보이고 있다. 그 또한 대표되는 조기음악교육가이다.

저명한 음악가들의 조기 교육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한편 이론(異論)을 말한 사람도 있으니 예컨대 헝가리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1973년도에 내한하여 이화여대 강당에서 연주한 폴데스(Andor Foldes)<sup>18)</sup>는 피아노를 너무 조기에 교육하면 안 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어린이에게는 대단한 주의력의 집중이 필요하므로 글자를 배운 다음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간격을 최소한 2개년은 두어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일에 걸친 수련에 의하여 음악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로부터 75세까지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우기 이전에 오르간이나 리듬악기의 경험을 가진다거나 좋은 음악감상, 독보력의 함양 등은 물론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어린이가 피아노를 포함해서 음악적 수련을 쌓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략 유치원부터가 적합하며 조기 교육을 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폴란드 태생의 저명한 피아니스트 호프만(Josef Hofmann)<sup>19)</sup>의 계명(戒命)에서 다음과 같이 엿볼 수 있다.

“피아노는 재능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올바른 노력을 쏟으면 몇 살에 시작해도 좋다”라고 강조했다. 피아노의 조기 교육의 붐을 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피아노 교육열이 고조되고 있으며 올바른 피아노 음악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8) 폴데스(Andor Foldes):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19) Josef Hofmann(1876~1957): 피아노의 거匠 루빈슈타인에게 피아노를 배운 뒤 神童 피아니스트로서 국제적 명성을 떨쳤다.

## 2. 음악 교육가들의 음악교육방법

### 1) 달크로즈<sup>20)</sup>

#### (1) 달크로즈의 음악 교육 이론<sup>21)</sup>

달크로즈는 음악은 신체적 움직임 즉 손과 팔의 동작 등으로 표현하고 리듬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체적 움직임을 통한 음악교육은 청음능력과 정신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음악가 양성의 재래식 방법이 지적인 면으로만 치중하고 음악공부 초기에 다루어야 할 기초적인 요소에 관하여는 귀중한 경험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는 처음으로 음절로 부르는 법(solfege)을 개발하였다.<sup>22)</sup> 또한 달크로즈는 그 학생들에게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은 흐름결에 대한 감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때부터 학생들이 음악을 느끼고 발견하고 연상하고 상호관련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독보하고 작곡할 수 있으며 악곡을 해석하고 연주하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발견하는 데에 헌신하였다. 그는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의 기초적 요소들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음악 학습의 주된 역할이어야 한다고 믿고 Eurhythmics(유리드믹스)와 Solfege(솔페이 지, 게이름으로 부르기), 즉흥 연주 하기의 세 가지 접근 방법을 개발하였다.

#### (2) 음악교육철학<sup>23)</sup>

- ① 음악은 지적이기 이전에 감각적이어야 한다.
- ② 신체 모든 부분이 감각 기관이므로 이들의 발달을 꾀함이 중요하며 음악적 생각이나 느낌은 신체를 통해 표현 되어야 한다.
- ③ 듣기 훈련이 모든 음악학습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20) 달크로즈(Emile Jaques Dalcroze, 1865~1950): 스위스의 음악교육가 · 작곡가, 음을 신체의 운동으로 환원하는 리듬교육법인 달크로즈 유리드믹스를 창안함. 제네바 · 런던 · 파리 · 뉴욕 등의 주요 도시에 학교를 세워 이론과 실기를 지도 · 보급하였다.

21) 허은진, “ 아동기 초기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19.

22) 찰스 R. 호퍼(Hoffer, Charles R), 안미자역, 「음악교육론」,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p.150.

23) 안재신, 「유아음악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1996, p.56.

- ④ 어린이들의 음악적 경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리듬경험과 청각훈련이 있는 후에 악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 ⑤ 어린이 개개인의 개인성과 독창성은 극도로 중시되어야 한다.
- ⑥ 리듬, 셈여림, 박자, 속도, 음의 고저, 음의 구성 등 음악의 본질 개념에 대한 가르침과 신체를 통한 이들의 이해 표현에 대한 경험이 중시 되어야 한다.

### (3) 달크로즈의 교수법<sup>24)</sup>

달크로즈는 인간 개개인이 타고난 음악적 리듬과 음악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악과 신체표현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의 리듬감각 및 청각능력의 발달과 창의력 신장이 음악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였다. 그는 인간의 음악성을 최대한 계발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3가지 요소 유리드믹스, 솔페지, 즉흥연주를 포함하는 통합적 음악학습방법을 개발하였다.

위의 요소들과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키기 위한 음악듣기가 달크로즈 방법에서 추구하는 바이지만, 유리드믹스가 음악수업에서 많은 관심이 되어 적용되고 있다.

#### ① 유리드믹스

유리드믹스의 유(Eu)는 좋다(Good)라는 의미로 리듬을 말한다. 우리가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면 옷의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옷의 질을 살펴보고 그 옷감이 주는 느낌을 선택하게 된다. 음악도 옷감처럼 여러 가지의 질(Quality)이 있다. 음악의 질은 리듬에서 나온다고 한다. 같은 리듬일지라도 국악에서의 맛과 서양에서의 연주 맛이 다르듯이 음악의 맛을 이해하려면 리듬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달크로즈는 음악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리듬을 가장 먼저 개발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리듬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리드믹스(Eurhythmics)를 고안하였고, 유리드믹스는 솔페지, 즉흥연주와 연계되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달크로즈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음악의 기본적 요소인 템포, 박자, 리듬, 강약, 음색, 화성, 악곡 형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더불어 음악성, 창의성,

24) 노영순, “아동기 피아노 학습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p.13-16.

표현력, 집중력, 사회성을 연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달크로즈 교육은 어린이가 악기를 배우기 전 적어도 1년 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연구발표에 의하면 달크로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실제로 그들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할 때 달크로즈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음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흥미를 보인다고 한다.

유리드믹스란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피아노에 맞추어 자유스럽게 신체표현을 장려하는 것으로 유리드믹스의 기초적인 활동은 음악에 신체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피아노로 연주되는 곡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시작되어야 하며 4~5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악에 맞추어 걷는 것은 적당한 빠르기로 즉흥 연주되는 음악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뛰는 것은 좀 더 빠른 음악에 적절하다. 이러한 리듬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음악에 대한 기초 경험으로서 시작되고, 그 결과 학생은 좀 더 복잡한 음악에도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가 왼손으로 연주할 때는 걷고, 피아니스트가 오른손으로 연주할 때는 뛰는 것이다. 이 때 학생의 몸은 음악적 악기로서의 역할을 하며, 학생은 음악적 이해를 몸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 ② 솔페지

음정, 화음 등 음의 흐름을 음악적 게임을 통해 체험하고 표현하도록 하며 게이름을 언어처럼 말하듯이 노래하고 연주한다. 이를 통하여 음악이론과 게이름을 체계적으로 익혀, 악보의 전체적인 이해와 정확한 표현능력을 얻게 되며 즉흥연주를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된다. 특히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솔페지 교육은 리듬감의 계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율동과 즉흥 연주가 솔페지 교육에 허용된다.

솔페지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에 관한 인식능력을 가능한 한 예민하게 길러서 음악을 공부하고 감상하는 기초를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서 시창, 청음을 통한 전반적인 음악교육을 의미한다.

좁은 뜻으로 음의 절대음고(絶代音高)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절대음감교육을 뜻하며, 절대음감교육은 고정 도(do)창법과 화음교육으로서 화음판별, 단음추출창 등에 의하여 음을 익히는 것이다.

특히, 절대음감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기르기 어려우므로 조기교육



이 바람직하며, 넓은 뜻에서의 음감교육은 리듬읽기, 계이름 부르기와 음을 듣고 판별하고, 들은 음을 그대로 읊길 수 있는 능력의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리듬읽기에는 요즘 ‘랄라라’ 등의 창법을 쓰이고 있으며 도형을 사용하는 지도법도 이용되고 있으며 계이름 부르기는 5선상의 음표를 계이름으로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며 음을 듣고 그대로 읊길 수 있는 능력이란 읽은 계이름을 정확한 음정으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모두 악기를 사용함으로써 순조로운 향상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음감교육을 음악교육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리듬, 프레이즈, 박자감과의 관련, 계이름 부르기는 프레이즈에서의 종지감 조성과의 관련을 가지게 되며, 화음은 화성진행이나 화음이 지닌 기능과의 관련을 지니게 한다. 생명이 있는 음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지도가 그 음악에 적합한 음색이나 표정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음악교육에 직결되는 음감교육이 되어야만 교육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 ③ 즉흥연주

16~18세기에 중시되던 즉흥연주는 작곡가들이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의도를 악보에 충실하게 기보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쇠퇴하였다. 하지만 달크로즈는 즉흥연주의 음악교육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생들에게 일정한 패턴을 주어 그것을 즉흥적으로 전개시켜 음악성을 기르는 훈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즉흥연주가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 육체적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권장한다. 즉흥 이야기, 즉흥 움직임, 즉흥 노래, 즉흥 피아노, 즉흥 타악기 연주 등 음악과 연관된 예술의 모든 것을 즉흥으로 표현하고 계발한다. 음절, 리듬, 멜로디, 하모니, 그리고 시간과 움직임 등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음악을 창조하게 되는데 음악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재료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개념이다.

이처럼 달크로즈는 율동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중요시했다. 음악을 듣고 율동을 하면서 능동적 자기 자신을 표현하다 보면, 음악을 흡수하는 힘이 더욱 강해진다고 했다. 그는 음악경험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리듬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악학습을 하기 전에 먼저 음을 듣는 청음훈련, 리듬 율동훈련, 음악감상, 노래부르기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크로즈의 음악교육은 올바르게 듣는 훈련을 통하여 정확한 청음발달을 이루게 하고, 유아들이 몸 전체로 음악적 리듬을 느끼게 함으로써 리듬에 대한 민감성을 계발하고, 악보의 전체적인 이해와 정확한 표현능력을 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음악교육은 장래 사회인으로서 바람직한 인간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시기의 유아들에게 음악적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달크로즈는 피아노를 즉흥연주의 지도에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피아노는 즉흥적으로 자신의 음악적 의도를 자유롭게 표현하기에 가장 쉽고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흥연주 지도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음악적 충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음악 창작의 자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시 하였다.

## 2) 오르프<sup>25)</sup>

### (1) 오르프의 음악교육이론<sup>26)</sup>

오르프(Carl Orff)는 음악지도에 강렬하고 역동적인 학습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음악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선구적인 음악 교육가였다. 오르프의 음악지도 방법 및 자료개발은 무용 및 극음악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과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sup>27)</sup>에 영향을 받아 즉흥연주와 율동을 강조하는 음악지도법을 개발하였다.

1924년 무용가인 권터(Dorothea Gunther)<sup>28)</sup>와 함께 권터 학교를 뮌헨에 설립하여 유리드믹스 원리에 따른 리듬운동과 창의성 지도를 무용교사와 체육교사에게 실시하였고 작스(Curt Sachs)<sup>29)</sup>와 맨들러(Karl Maendler)<sup>30)</sup>의 도움으로 기악 합주부도 개설하였다. <sup>31)</sup>

오르프는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타악기

25) 오르프(Carl Orff, 1895~1982): 독일의 작곡가 겸 지휘자이자 교육가로 권터와 함께 음악과 체육을 결합시키는 데 힘썼으며 음악교육부에서 교편을 잡았다. 대표작 《카르미나부라나 Carmina Burana》 등을 작곡하여 독자적 작풍을 확립하였다.

26) 허은진, “아동기 초기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21.

27) 이홍수, 전게서, 1990, p.352.

28) 권터(Dorothea Gunther, 1924~ ): 독일의 무용가.

29) 작스(Curt Sachs, 1881~1959): 독일의 음악학자.

30) 맨들러(Karl Maendler, 1920~ ): 피아노 제작가.

31) 길애경, 임미경 편저, 「초등음악 지도법」, 서울 : 수문당, 1996, p.210.

대신 리듬공부를 하고, 이야기하듯이 말을 구사하여 노래를 만듦으로 해서 어린이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즐겁게 음악을 공부하도록 유도하였다.<sup>32)</sup>

오르프의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악미의 감득과 자신의 표현, 능력배양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의 생활에 관련되는 말, 동작, 노래 등이 수반되는 기초적인 음악의 확립을 중요시하여, 가능한 많은 음악적 경험을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음악의 본질을 맛보게 하였다.<sup>33)</sup> 즉, 이 방법은 지적 이해에 앞서 신체적인 경험으로 음악의 요소를 체득케 하여 음악적 감각을 계발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2) 음악교육철학<sup>34)</sup>

stone(1971)은 오르프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① 음악은 나이나 능력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아동을 위한 것이다.
- ② 음악은 즉흥적인 경험이어야 한다.
- ③ 음악적 경험은 일찍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원시적인 아이들의 세계로부터 좀더 복잡한 발달 단계를 거쳐 현재의 음악 수준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 ④ 음악적 경험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얻어진다.
- ⑤ 음악은 놀이, 대화, 동작, 악기의 종합경험이어야 한다.
- ⑥ 음악은 본래 기초적이어야 한다.
- ⑦ 리듬과 멜로디는 음악의 출발점이다.
- ⑧ 비음악적인 아동들은 거의 없다.

## (3) 오르프의 교수법<sup>35)</sup>

오르프는 모든 어린이들로 하여금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음악 경험을 통해 자기표현을 위한 음악적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으며 인격형성을 위한 전인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

32) 송정이,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서울: 음악춘추사 1986, p.81.

33) 오숙경, “Orff와 Kodaly 음악교육 이념의 비교고찰”, 「음악교육 연구」 제1집, 서울: 형설출판사, 1973, p.2.

34) 전혜경, “아동기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피아노 교육방법에 관한 방향연구”, 중앙대학교, 2000, p.10.

35) 허은진, 전게서, pp.23-25.

### ① 말하기

음악적인 경험으로서의 말하기 학습은 중요한 오르프 접근방법이며 말하기 학습에서 점진적으로 리듬활동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가창활동으로 발전하여 이어지는 것이다. 몸 리듬으로는 손뼉 치기, 발차기, 손가락 튕기기, 무릎치기 등으로 리듬표현을 하며 리듬개념은 말하기 학습과 몸의 리듬학습을 합침으로 더 강화된다.

말하기 형태는 어린이들에게 쉽게 연상되는 간단한 아이의 이름 같은 말로 시작해서 돌림이야기 같은 복잡한 형태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말하기 학습을 통하여 박자, 액센트, 프레이징, 셈여림, 스타카토, 레가토, 음악형식 같은 음악의 요소들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 ② 노래부르기<sup>36)</sup>

선율이 리듬에서 파생 되듯이 말하기 학습 이후에 가창학습이 이루어진다. 오르프의 음악지도는 말하기와 노래 부르기를 하나의 학습체험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두 가지 활동이 각각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즉, 말의 흐름 결 학습에 이어서 그 말로 노래 만들어 부르기를 함으로써 흐름 결로부터 가락이 발생하도록 이끌고 있다.

초기단계에는 교사와 학생들 또는 학생들에게 짧은 가락으로 서로 응답하며 노래 부르고 교사의 노래를 모방하여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노래로 대화하기와 부른 노래를 악보로 적기 등도 권장하고 있다.

오르프는 가락음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한 음정관계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하행만 3도, 솔-미 가락으로 시작하고 그 후에 라, 레, 도가 첨가되어 5음 음계의 곡들을 학습하게 된다. 파와 시는 제일 나중에 배우게 된다.

오르프가 5음 음계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어린이들의 정신 발달단계에 적합한 음계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노래 부르기에 쉬우며, 반음을 포함하지 않아서 그 중 어느 음들을 함께 울려도 심한 불협화음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즉흥연주에 적절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 ③ 신체동작

36) 이홍수, 전게서, 1990, pp.364-365.

모든 어린이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자연스런 움직임이 기초적인 신체동작이며 뛰어나기, 돌기, 점프하기 등 어린이들의 음악적 개념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 기초적인 동작들을 음악과 연결시켜 이것들을 음악적 개념들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걷기는 4분음표 빨리 걷기는 8분음표, 강충 뛰기는 점 8분음표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특별한 연습 없이 이러한 동작은 어린이들이 창작하는 노래나 악기연주 등의 한부분이 될 수 있다.

#### ④ 즉흥연주

음악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창조성을 기르는 일이다. 창작학습의 주된 형태는 즉흥연주로 이루어지며 즉흥 연주를 하는 매개체는 이야기, 몸, 리듬, 노래, 율동, 선율적이거나 비선율(非旋律)적인 악기들이다.

즉흥연주를 하는 분야는 리듬과 선율형태, 서주, 반주, 후주들이다, 즉흥연주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음악을 창조적으로 생각해 내는 과정을 체험시키므로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 ⑤ 기악학습

음악학습을 위한 학습 자료에서 악기를 필수적으로 보고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사용하는데 특히 그가 제작한 악기들을 주로 사용한다.

오르프 악기로는 다양한 크기의 실로폰, 메탈로폰, 글로켄슈piel(Glockenspiel) 등이 있고 후에 플루트와 감바<sup>37)</sup> 같은 악기를 첨가하였다. 리듬 타악기로 큰북, 작은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즈, 막대악기 등이 있으며 오르프는 어린이가 음악을 자유롭게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선호하였다.

37) 감바(viola da gamba): 칠현악기, 베이스비올(bass viol) · 비올(Viol)이라고 부르기도 함, 비올족의 일종으로 1400년도에 시작하여 르네상스와 바로크시대에 유행된 악기로 현은 보통 6개이며 16세기에는 4~개 인 경우도 있었다.

### 3) 코다이<sup>38)</sup>

#### (1) 코다이의 음악교육이론<sup>39)</sup>

코다이는 바르톡<sup>40)</sup>과 함께 헝가리에서 쌍벽을 이루는 20세기의 대표적 작곡가이다.<sup>41)</sup> 「Hary Janos」, 「Psalmus Hungaricus」 등의 작품들을 통하여 작곡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고 동시에 음악교육에 공헌이 지대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듣고 말할 수 있는 정상적 어린이는 누구나 다 음악성의 신장이 가능하다고 본 코다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교육이 단계적으로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표명하였다. 글을 모르고 인류의 문명을 이해할 수 없듯이 독보력 없는 음맹 상태에서는 진정한 음악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린이 음악교육의 시작은 출생하기 9개월 전이라 하여<sup>42)</sup> 가정음악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코다이는 무엇보다도 노래를 통한 조기 교육을 주장하였다. 즉 악기는 소수의 어린이만의 소유물이지만, 목소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으로써,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악기이며 모든 음악학습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실증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창작생활의 일부를 어린이의 교육에 바쳐 좀 더 고차원적인 예술음악(art music)을 감상할 수 있는 인구의 증가를 기도하였다.

20세기 초의 헝가리 음악교육은 거의 백지와 같다고 볼 수 있었는데, 코다이 시스템의 많은 보급으로 인하여 현재의 헝가리 어린이들은 모두가 코다이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영향은 획기적이었던 것이다.

독보력이 생기기 이전에는 악기를 다루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초등학교에서는

38)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민족음악학자이며 교육가. 민요 연구 분야에 과학적·조직적인 체계를 확립하였고 헝가리 음악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행하였다. 대표작 오페라 《하리 야노시》, 칸타타 《헝가리 시편》 등.

39) 노영순, 전게서, pp.25-27.

40) 바르톡(Bela Bartok, 1881-1945): 헝가리의 작곡가, 민족적 색채를 기조로 하면서 종래의 조성이나 민요의 음계에 머물지 않고 비상한 긴장력과 밀도 높은 20세기 최대의 걸작들을 작곡, 후기에는 중기의 강도 높은 긴박감이 쇠퇴한 대신 맑고 평명한 스타일을 보였다. 대표작 《현악기·타악기·첼로를 위한 음악》 등.

41) 하진미, “피아노 초기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1988, p.4.

42) Klara Kokas, "Kodaly's Concept of Music Education" I. S. M. E. Semiar Papers, Stockholm, 1970, p.38.

주 2시간의 음악시간이 배당되고 있으나 6학년이 되면 바르톡의 3부로된 「어린이 노래집」(Children's Songs)을 능히 읽을 수 있는 독보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코다이 시스템을 채택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악보를 읽으며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코다이는 1905년부터 민요를 수집하여 음악교육자료로서 활용하였으며, 수천 개의 멜로디를 음반에 취입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민요는 수세기를 내려오는 민족의 지혜를 엮어진 산 음악이고,<sup>43)</sup> 음악과 언어와의 관계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다이는 새로운 의의를 찾은 것이다. 즉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원리와 과정을 적용시켜서 음악적인 모국어, 즉 민요를 초기 교육 자료로 삼은 것도 헝가리 민요역시 5음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상한 것이다.

## (2) 음악교육철학<sup>44)</sup>

Stone(1971)은 코다이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45)</sup>

- ① 음악은 모든 어린이의 것이다.
- ② 음악은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경험되어야 한다.
- ③ 음악은 조기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④ 음악언어는 모국어를 배우듯이 익혀야 한다.
- ⑤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악기이며, 합창은 조기교육에 있어 독창과 악기보다 우위에 있다.
- ⑥ 한 국가의 민족 음악과 가곡의 문화적 유산은 음악을 훈련하는데 기본교재가 되어야 한다.
- ⑦ 음악은 어린이들에게 생활화되어야 한다.
- ⑧ 어린이들에게 명곡만으로 충분하다.
- ⑨ 좋은 교사는 그들 자신이 어릴 적 부터 적절히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⑩ 어린이들은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존경과 관심으로써 대하고 발전시

43) 이흥수, 전계서, 1990, p.328.

44) 허은진, 전계서, p.26-27.

45) Stone, Margaret L, Ibid 1971, p.53~57.

켜야 한다.

(3) 코다이 교수법<sup>46)</sup>

① 리듬감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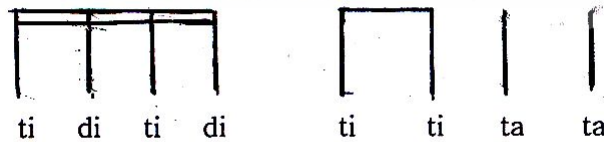
리듬감 지도의 첫 단계는 박을 알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기본박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음표 및 쉼표의 길이를 파악한다. 어린이들은 손뼉 치기, 걷기, 무릎치기, 발 구르기, 허리 굽히기 등 신체동작을 통하여 리듬감을 습득한다.

코다이는 리듬요소를 그림과 관련 지움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통해 지도하며 그림의 크기로 음의 길이를 암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음표의 음가를 음들의 기둥과 기호만 나타냄으로써 단순화 된 악보의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sup>47)</sup> 또한 그림을 통한 리듬장애 있어서 4분음표와 8분음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둥만으로 이루어지는 리듬기호가 특이하다.

그림1. 코다이의 리듬기호



16분 음표의 경우는



46) 노영순, 전계서, p.28-30.

47) 이홍수, 전계서, 1990, p.346.



## ② 박자감의 지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초기의 어린이들은 찬팅(chanting)·손뼉치기·걸기를 통한 박자감의 훈련을 시작한다. 찬팅은 대개 놀리는 게임(teasing game)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5음계 중 3개의 음(sol·mi·la)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찬트로 알려져 있다.

그림2. 박자감의 지도악보



라임(rhyme)역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노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박자감부터 길러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표·임시표·음표·셈표 등의 복잡한 음악 기호에 접근하기 전에 마땅히 선행되어야 할 리듬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 ③ 계명창(Solfège Singing)

코다이는 독보력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이동도법의 계명창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조가 변하더라도 두음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므로 좋은 전이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코다이 교수법의 계명창법 지도는 귀도(Guido d'Arezzo)<sup>48)</sup>의 계명과 켈윈(John Curwen)<sup>49)</sup>의 창법, 슈베(E.M. Cheve)의 수자보, 훈데거(Agnes Hundaegger)의 Tonic-Do-Lehre 등의 아이디어가 조금씩 가미되어 단계적인 지도 방법을 꾀 하였으며, 청각과 시각에 연관을 짓는다.

48) 귀도(Guido d'Arezzo, 992~1050): 1020년경 폰포자(페라라 근교)의 베네딕트회 성마리아수도원에 들어가 음악이론을 배우고, 오늘날의 5선보와 원리가 거의 같은 4선(四線)을 사용한 새로운 기보법을 고안하고 《그레고리오성가집》을 기보하였다.

49) 켈윈(John Curwen, 1817~1896): 영국의 음악가이며 출판업자로 아버지, 부인, 조카 등 그의 가계가 음악가로서 계명창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국 합창음악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음.

### 그림3. 코다이의 계명

1.  $s - m$
  2.  $s - m$
  3.  $l - s - m - d$
  4.  $l - s - m - r - d$
  5.  $d' - l - s - m - r - d$
  6.  $l - s - m - r - d - l,$
  7.  $l - s - m - r - d - l, - s,$
  8.  $s - f - m - r - d$
  9.  $m - r - d - t, - l,$
  10.  $l - s - f - m - r - d - t, - l,$
  11.  $d' - t - l - s - f - m - r - d$
- (d' 는 8도위 · d,는 밑)

#### ④ 손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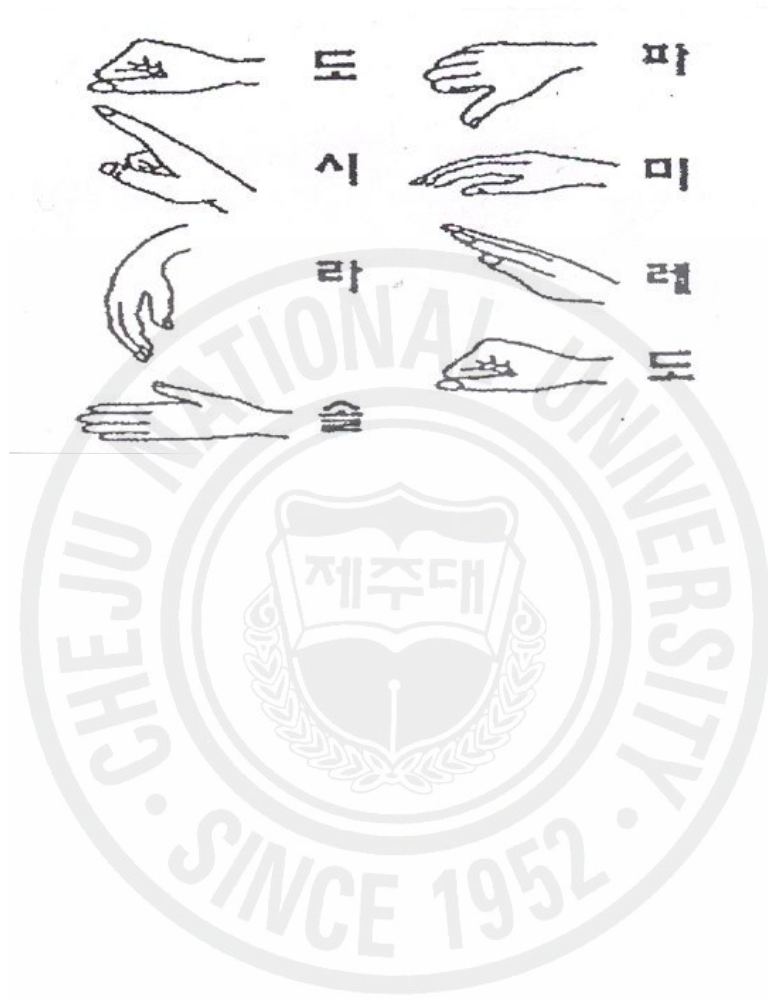
코다이는 악보 읽기를 좀 더 쉽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컬원이 개발한 손 신호 체계를 다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코다이의 손 신호는 음계 안에서 음들 간의 선율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손의 위치나 모양에 의해 음의 고저나 상행, 하행을 선율 흐름에 따라 나타내고 양손 이용시 전조 또는 성부별 움직임까지 나타낼 수 있어서 악보 읽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손 신호 방법은 학생들의 음정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계이름으로 부르는 능력과 내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신호와 함께 계이름으로 부르기를 충실히 하면 손 신호를 하거나 보면서도 마음속에 으뜸음을 떠올리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특정한 으뜸음을 기준으로 조성감이 형성된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음악활동의 전반에 걸쳐 필요한 음정감이 확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음정감이 계이름 시창과 기보, 감상 곡의 총보 읽기, 작곡 등의 기반

이 되기 때문이다. 코다이의 손 신호 체계는 <그림4>와 같다.

그림4. 코다이 손 신호 체계



### Ⅲ. 피아노 기초교육 방법 연구

#### 1. 피아노 학습의 목적

피아노 학습의 목적은 선율, 화성, 리듬 그리고 형식의 상호관련을 지각하기 위하여 경험을 조직하고 또 응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지도에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연주능력을 개발하는 수단으로서 음악을 이해하고, 분명히 하며, 효과적인 학습경험을 갖도록 설명을 전개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피아노 학습은 청각, 리듬, 기교조절의 종합을 이루도록 지도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과정은 현재와 미래의 음악 경험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스스로 가르치는 효과적인 기술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레슨은 학생이 해석을 결정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학습, 연주과정에서 음악적으로 독립하도록 장려하며, 직업적이건 혹은 자아실현의 능력에서 건 간에 음악적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음악적 지식과 미적 반응을 개발하도록 지도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음악적 지식의 발달은 다만 음악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목적에 대한 지각, 지적·청각적인 지도와 조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음악적 지식은 프레이즈의 성격, 프레이즈가 서주인지 끝부분인지, 제시부인지 혹은 다목적인 것인지를 결정짓는 능력에 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음악적 소리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음악적 지식의 발달은 학생이 점진적으로 지적인 음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연주자로서 성장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러한 광범위하고도 전반적인 목적을 마음에 새겨두면 더욱 많은 학생들이 “모방자”가 되는 대신, 음악인으로 발전할 것이다. 명교사들의 목표는 인간 고유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의식적인 표현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유롭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 일반적인 목표나 목적을 결정하는 지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sup>50)</sup>

50) 맥스 캠프(Camp, Max W), 안미자 역, 「피아노 연주법」,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95, p.65.

- 1) 피아노 지도는 음악작품의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과 피아노를 통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여, 훌륭한 연주의 본질이 되는 청각, 리듬 그리고 기교 조절이 종합을 이루도록 육성해야 한다.
- 2) 목적은 개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기계적인 접근보다는 전체를 강조하는 전체적 접근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
- 3) 피아노 학습에서 학습의 발달이론을 참고로 한 교수접근은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주며, 모든 연주능력 개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 4) 지도와 학습의 발달과정을 참고로 하는 교수접근은 피아노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기반과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르치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최상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5) 교수접근은 어떤 주어진 학습단계에서도 독립된 어떤 단위라든가, 시간제한에 관계없이 각 학생의 욕구, 연주능력 그리고 흥미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 6) 교수법은 해석을 결정하고 학습과 연주에서 음악적으로 독립하도록 장려하여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아마추어로서나 전문인으로서의 학습과 연주에서 음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음악적 지식과 미적 반응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 7) 음악작품의 단계 그룹 속에 있는 한 마디 단계와 여러 마디 단계에서 리듬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실제로 연주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전체”로서의 음악의 형식적 요소들을 지각하고 개념을 파악하는 길을 제시해 준다. “전체”적인 것에 숙달하는 것은 작은 단위의 집단을 점진적으로 이해하거나, 경험에 의한 구성요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 8) 학습이란 이전에 경험했던 것 이외에 지속적으로 쌓아올리는 연속적 구조를 통합하는 것에 의해 육성되기 때문에, 교사는 전 과정의 반복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초보자와 전문가는 똑같은 학습과정을 경험해야 하며, 유일하게 다른 것이라면 세부적인 점과 능력의 차이이다.
- 9) 피아노 학습은 강-약 박자형을 신체의 기본적 반응과 일치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피아노 연주에서의 모든 기교적이고 음악적인 면이 통일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10) 교사의 역할이란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후속적으로 더욱 복잡한 수준에서 재조직하도록 지도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학생이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각 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연주 능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념과 자료제시의 순서가 연결되도록 준비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

## 2. 교사의 역할

어떠한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지만 아동은 교사의 지도방법 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피아노 기초교육은 기본에서부터 음악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즉, 기초 입문 교육부터 표현에 풍부한 감정의 전달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음악교육이 아동이 음악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음악의 아름다움을 이해, 감동함으로써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피아노 교사의 지도 역할에는 악보를 가르치는 일 외에도 음감의 개발, 리듬감의 훈련 및 음악을 구성하는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의 학습, 학습자 자신의 음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음악적 창의력,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한 인간성의 향상이 되도록 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폭 넓고 창조적인 피아노 학습은 교사의 지도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도 할 만큼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기의 피아노 학습은 소리를 듣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음악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주입보다는 유도와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피아노 학습 자체를 즐거움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아노 초기 학습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6세가량의 아동의 집중력은 약 13-24분 정도이므로 장시간의 연습시간이나 레슨시간을 실시함으로써 자칫 고통스럽고 지겨운 음악공부가 되지 않도록 교사는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한 교육적 경험이 이루어지게끔 지도한다. 이때 연령이 어린 학생일수록 반드시 한 번에 한 개를 가르치는 것이 좋다. 지도 교사의 요구가 학습자의 수준이나 능력에 비해

지나치면 오히려 학습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1)

그렇다면 음악의 성장을 책임질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훌륭한 품성과 함께 자기의 지식을 아동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둘째, 피아노 교사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음악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즉, 자신의 전공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악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도 경험을 넓혀야 한다. 52)

셋째, 늘 연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동을 요령 있게 다루는 것만을 유일한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동과 더불어 연구하고 성장하는 지도 교사가 되어야 한다.

넷째, 지치지 않는 인내와 유머로서 집중력이 짧은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교면과 함께 음악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성과 상상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자로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교육심리학자 데이비드 오수벨(David Ausubel)<sup>53)</sup>은 “아마도 교사의 가장 중요한 성격의 특징이란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학생들의 지적발달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sup>54)</sup>

피아노 학습의 성패는 가르치는 교사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잠재력과 소질을 계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

51) 허은진, 전게서, 2004, p.48.

52) 박찬석, 「피아노 교수학」, 서울 : 세광출판사, 1992. p.115.

53) 데이비드 오수벨(David Ausubel): 교육심리학자, 당시 유행했던 AudioOlingual Method(직접 교수법 (first language learning)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의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H. H. Stern이 열거한 1 언어 습득 방식을 2 언어학습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들을 비판했다.

54) 찰스 R. 호퍼(Hoffer, Charles R), 안미자역, 전게서, 1989, p.24.

### 3. 부모의 역할

조기교육이 강조되는 요즘 아동의 자질과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므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차적 교육환경인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둘째, 지도 교사를 신뢰하고 자녀의 학습정도나 태도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차기 교육의 디딤돌이 되도록 협조한다.

셋째, 형식적인 진도에 구애되지 않고 음악적 내용의 발전 심화에 주목한다.

넷째, 음악 감상을 시킴으로 아동의 음악적 바탕을 튼튼하게 만든다.

다섯째, 어린이의 건강을 항상 보살필 것, 적당한 수면, 영양섭취, 운동 등에 항상 유의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항상 건강하고 명랑하며,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55)

여섯째, 아동으로 하여금 항상 완만하고 올바른 인격자가 될 수 있게 모든 생활을 보살핀다.

피아노 하기를 강요하거나, 부모가 대리만족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다른 아동과의 경쟁적으로 피아노를 가르친다면 이는 정서적으로나 시간적, 물리적으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부모의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동들의 생활을 계획성 있게 짜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현명한 역할이다.

### 4. 피아노 학습지도상의 유의점

아동기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면서 많은 아동들이 음악학습의 첫 입문을 피아노로 선택하는 이유는 피아노가 보다 기초적이고 종합적이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조기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아노

---

55) 박찬석, 전계서, p.123.



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아동들의 감수성이 가장 민감한 아동기에 지능개발과 함께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아동들의 정신과 신체적 성장에 자극하는 것이 인격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즉, 전인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피아노를 통한 음악교육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피아노 교육을 테크닉의 지도에만 한정하지 말고, 음악적 욕구와 미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며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아동의 피아노 지도 시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이용한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모색한다면 전인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음악가나 연구가로서의 기초적 자질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피아노 학습지도시의 유의점을 요약하면,<sup>56)</sup>

첫째, 피아노 교육은 아동의 개성과 능력에 맞게 지도되어야 한다. 어린이의 성장발육이나 음악에 대한 반응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여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지도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학부모들의 적절한 기대가 필요하다.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심리나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킬게 아니라 자녀의 자질을 고려하여 스스로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는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대하여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학습지도에 임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에 임하는 태도 및 교육관,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교육이전에 정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필수 요인이다. 왜냐하면 교사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비로소 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자신감을 길러주어야 한다. 흥미를 잃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며 꾸지람보다는 칭찬으로써 자신감을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하여야 한다. 발표회나 콩쿨을 마련하여 참다운 음악을 알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며 음악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피아노 교육에서 기본적인 이론과 태도를 이해시키고 실기와 병행함으

---

56) 노영순, 전계서, pp.111-113.

로써 합리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이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손가락 연습, 박자와 리듬, 스타카토, 레카토 음계, 화음, 청음, 시창 등에 관한 학습은 음악이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음악적 요소이므로 정확하게 지도되어야 한다.

여섯째, 창의적인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피아노를 쳐보게 하고 교습환경과 가정의 음악적 환경이 잘 연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음악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인적인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피아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피아노 교육이어야 한다. 음악은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주고 인간이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은 전문적인 음악가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의 자질향상에 기여하여 그들이 정서적으로 풍부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덟째, 아동기의 어린이들에게 반주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피아노로 노래를 반주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의 음악적 소양을 기르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반주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창, 청음능력 더 나아가서는 창의력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5. 피아노 학습장의 시설과 환경<sup>57)</sup>

아동들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음악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교사로 하여금 지적, 사회적, 심리적, 음악적 가능성을 아동들에게 포괄적으로 조화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본의 사회음악 교육자 스즈키<sup>58)</sup>는 “재능은 능력이고 그 능력은 키워진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교육방법을 동원하느냐

57) 허은진, 전게서, p.52.

58) 신이치 스즈키(1898~): 일본음악교육자.

에 따라서 음악에서 필요한 능력은 갖추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학습장을 만들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악기, 환경, 교구면을 각각 분리하여 살펴보면,

첫째, 악기면을 살펴보면 우선은 조율이 잘 된 피아노가 필수이다. 현재 조율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1년에 2회 정도 학원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2-3개월에 한 번씩은 조율을 하여야 보다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으며 나아가 정확한 음정의 소리는 아이들의 청음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디지털 피아노와 신디사이저등의 전자악기를 비치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전자악기를 비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자악기의 리듬 반주를 이용함으로써 리듬감과 박자감을 유도할 수 있으며 피아노만 계속해서 칠 경우의 지루함에 변화를 줌으로써 흥미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악기의 특성을 살려 피아노 건반을 이용해 다른 많은 악기의 음색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며 악기 상호간의 조화로운 음 배합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자 악기 이외에도 리듬악기(큰북, 작은 북,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즈)등을 비치하고 사용함으로 더욱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근감을 더 해 줄 수도 있다.

둘째, 환경면을 살펴보면, 개인레슨실과 감상실, 이론실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만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피아노가 바탕이 되어 포괄적인 음악교육을 이룰 수 있다. 방음시설 또한 꼭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여러 가지 교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게시판을 설치해 악보를 이용해서 음정 보표 그 외의 이론적인 내용을 아이들이 항상 보게 한다. 더 쉽고 더 빨리 음악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비가 잘 된 레슨실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은 학습이 능률적이며, 교사의 지도면에 있어서도 학습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 6. 피아노 교육을 위한 학습내용

### 1) 피아노 학습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와 학습시간

헝가리 출신의 폴데스<sup>59)</sup>는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어린이에게는 대단한 주의 집중이 필요하므로 글자를 배운 후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간격은 최소한 2년간은 두어야 한다.”<sup>60)</sup> 라고 말하고 있고 베스틴(J.W. Bestin)은 취학 전을 적절한 시기라 보며,<sup>61)</sup> 쿠프랭(Couperin)<sup>62)</sup>은 6세나 7세가 피아노를 시작하는 가장 적절한 나이라고 했다.<sup>63)</sup>

음악교육을 시작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래를 잘 부르는가? 음악듣기를 좋아하는가? 음악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가?

둘째, 한 번에 10분 정도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셋째, 아동이 자신의 작은 근육을 잘 조정하고 있는가? 아동에게 글씨쓰기, 이 름쓰기 등을 가르쳤을 때 아동이 연필 등을 잘 놀릴 수 있는가?

넷째 새로 배운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sup>64)</sup>

피아노는 피아노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미숙한 점이 있다면 아동에게 피아노를 배우도록 하는 것을 좀 미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아동에게는 그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준비되기만 한다면 가능한 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음악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외에 다른 학습 발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욕심만으로 하는 일방적인 예술교육은 아동에게 피아노 학습은 매력도

59) 폴데스(Foldes, 1913~): 헝가리출신의 피아니스트

60) 한해면, 전게서, p.3.

61) 정윤숙, “조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p.21.

62) 프랑시스 쿠프랭(Prancious Couperin, 1688~1733): 바로크시대 프랑스 음악가.

63) James W. Bastien, 정정식 역,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0, p.107.

64) 김은영, “조기피아노 교육을 위한 올바른 지도 방법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pp.13-14.

없고 감동도 없는 고통스러운 공부라는 인상만 심어주므로 아동이 음악에 대한 이해력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때까지 놀이를 통해 스스로 음악을 느끼게 하거나 노래하는 시간을 통하여 리듬 감각과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거나 여러 종류의 동작을 정한 기회를 통하여 음악과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욕만 앞서서 너무 어린 학생이나 흥미가 없어 하는 아이들을 피아노 앞에 앉혀 억지로 학습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주의력의 범위는 아주 어린 아동의 경우 오직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며, 6세 때에는 흥미와 호기심에 따라 2~3가지의 일을 동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은 주의력이 약해서 30분 이상의 집중력이 어려우므로 아동의 반응여하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나누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주의력의 지속 시간은 흥미 있는 놀이의 경우 보통 3세 때는 5~13분, 4세 때는 6~20분 5세 때는 13~24분 정도이기 때문이다.<sup>65)</sup> 연습시간도 한꺼번에 장시간을 잡는 것보다 하루의 연습시간을 2~3회로 나누어 연습시키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교습시간은 40분을 기준으로 해서 피아노 교습시간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사가 피아노를 치고 아동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다든가 그림으로 된 이론 책으로 이론 공부를 한다든가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음악에 대한 흥미를 한층 더 일으키게 하는 것이 좋다. 아동이 집중력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교사가 애를 써도 학습의 효과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아노 그 자체를 가르치려는 것 보다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음악 전체에 대한 기초 훈련을 통하여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65) 세광출판사 편집부, 「유아기에 보이는 집중력과 그 발달과정」, 음악교육, 1990, p.49.

## 2) 첫 레슨<sup>66)</sup>

아무도 첫 레슨은 이런 것이라고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 명의 아동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이, 능력, 태도에 따라 레슨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아동들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고 싶어 하며, 배우려는 열기로 가득 차 있다.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대로 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소수의 아동들이기는 하지만 수줍음으로 인하여 반응이 더디고 흥미를 그리 느끼지 못하는 아동들도 있다. 요즘은 전공을 위해서만 피아노를 배우는 아동들은 많지 않다. 그렇다고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아동에게 강제로 레슨을 받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통 처음 시작하는 아동들은 가능한 한 빨리 피아노 건반 앞에 앉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타고 주저하는 아동에게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런 아동의 경우는 일반적 이야기, 혹은 다른 여러 악기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등에 관한 얘기로 첫 레슨을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모든 아동들이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인지에 매우 흥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피아노 내부를 보여주고 어떻게 건반과 해머 그리고 페달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주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피아노 건반을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 소리의 톤(tone)의 질과 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므로 건반 앞에 앉게 되는 첫 레슨 때에 설명되어야 한다.

많은 아동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피아노 앞에서 하는 레슨일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피아노를 치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건반을 쳐보고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피아니스트라도 소위 테크닉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아노를 연주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피아니스트도 빠르고, 느리게 또는 세고, 여리게 등 피아노를 완벽하게 조절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아동에게

---

66) 허은진, 전게서, p.53.

맞는 의자에 앉혀서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팔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또 팔은 가볍게 평행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아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와 함께 교사와 아동은 피아노 학습을 위해 만났으므로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와 아동과 친밀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처음부터 피아노 치기에 목표를 두지 말고 쉬운 기초 이론을 재미있게 익히거나 노래 부르기, 리듬을 듣는 훈련이나 신체로 표현하는 훈련 등으로 피아노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다. 첫레슨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아노 교사와 부모님이 생각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사가 생각해야 할 점<sup>67)</sup>

① 아동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과 그것을 공유해야 하며, 여기에는 아동이 바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아동의 취향과 좋아하는 것들을 수용하겠지만 음악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선생님이 해야 한다.

③ 계획성 있게 가르쳐야 하며 아이의 향상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④ 연주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⑤ 연습과 연주를 지도하는 데 있어 명확한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좋은 성격과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한다.

⑦ 아동의 생활 환경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⑧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의 음악적인 탐구를 독려할 줄 알아야 하며,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⑨ 아이의 학습 성향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⑩ 매일의 레슨을 계획하고 구상한다.

⑪ 음악 전문가를 위한 서적을 읽고, 악보와 교재를 고르기 위해 음악서점을 방문한다.

⑫ 발표회, 경연대회, 오디션 등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⑬ 계속 공부하기 위해 세미나, 강연 등에 참가한다.

---

67) 오세집, 「알프레드 프리미어 피아노 코스」, 서울 : 도서출판 (주)상지원, 2005, p. 50~51.

## (2) 부모가 생각할 점

① 레슨, 연주발표회, 그 밖의 레슨활동에 늦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악보와 준비물을 챙겨주어야 한다.

② 아동이 수업에 빠질 사유가 생기면 미리 충분한 시간을 앞두고 알려주어야 한다.

③ 아동의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④ 만일 숙제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너무 길거나 너무 짧다고 생각될 때는 꼭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선생님이 부탁하거나 부모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아이의 레슨 때 참관한다.

⑥ 집에 있는 피아노를 잘 조율한다. 그리고 메트로놈 같은 다른 모든 필요한 교구들도 꼭 갖추어야 한다.

⑦ 아동의 연습을 지켜봐 준다.

⑧ 레슨 외에 아동의 음악성 개발을 도와준다.

⑨ 아동이 레슨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거나 레슨을 그만두고 싶어하면 선생님께 즉시 알려준다.

⑩ 일상생활에서 음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⑪ 음악공부를 다른 과목, 또는 일반 생활과 관련시켜 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⑫ 음악에 대한 서적을 읽도록 권장하며, 음악이론 및 기초적 사항들과 관련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도록 이끌어 준다.

⑬ 디지털피아노 또는 음악기기들의 성능을 아이가 실험해 보도록 권장한다.

## 3) 리듬학습을 통한 피아노 지도

리듬은 선율 · 화성과 함께 음악의 3요소로 불리고 있다. 화성이나 선율 없이도 리듬만으로 음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의 요소 중에서도 리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리듬은 결코 음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무용이나 문학에 있어서도 시들은 모



두 음악과 같이 리듬 없이는 성립되지 못하는 예술이다. 즉 리듬은 음악, 무용, 문학에 있어서의 예술을 지배하는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리듬(Rhythm)은 희랍어로 ‘흐름’이라는 뜻으로 시간 속에서의 음악의 통제로서 운동을 기르는데 사용되는 말이다. 68) 리듬은 단순히 음의 장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단에 다이내믹과 템포가 속하여서 이루어진다. 리듬은 특히 신체적 동작을 많이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개념을 쉽게 인식시켜 창의성을 개발하는 음악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리듬의 창의적 음악활동은 실음을 통하여 음표의 기능을 이해시키며 리듬의 기본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박자를 쉽게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 유의점이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에게 수를 센다든지 메트로놈을 사용해서 분명한 박자와 음의 길이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리듬감을 정확히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리듬훈련은 육체적인 운동반응을 통해 훈련시켜야 하며, 팔을 리듬에 맞춰 흔들다든가 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한다. 초기교육에서는 손뼉을 치거나 발 구르기를 해서 리듬을 익힌다. 어린이들은 듣고, 노래하고 신체적 동작을 하면서 박자, 리듬형, 강세 등의 리듬요소에 반응하게 되고 빠르기도 느끼게 되며 간단한 리듬형을 만들고 연주하고 들으면서 리듬의 표현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학습과정은 개념적 리듬학습의 기본이 된다. 즉 일정한 박자를 듣고 식별하고 음악의 흐름 속에서 강세와 박자를 구별하고, 음길이를 깨닫고 하는 경험을 통해 리듬이라는 현상을 개념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69)

개념적 리듬접근의 단계를 개리(Charles L. Gary)는 그의 저서 (The Study of Music in Elementary School - a Conceptual Approach)에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 1단계: 모든 음악은 리듬을 가지고 있다.
- 2단계: 음악은 길고 짧은 음과 쉼표로 구성된 리듬형으로 되어 있다.
- 3단계: 음악의 흐름 속에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박을 가지고 있다.
- 4단계: 박자는 마디선 안에 있는 음의 길이의 구성을 나타낸다.

68) Machlis, Joseph, 신금선 역, 「음악의 즐거움(상)」,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p.32.

69) 김혜진, “리듬학습의 개념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p.31.

박자는 일정하게 반복하는 박과 리듬형을 수학적으로 나타낸다.

주어진 박자 내에서 수많은 리듬의 조화가 가능하다.

한 곡 내에서의 박자의 변화도 가능하다.

○ 5단계: 다성부(多聲部) 리듬은 여러 리듬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리듬은 여러 음악교육가들에게 매우 중요시 되어 왔다. 세계적인 음악교육가 달크로즈는 음악을 신체적 움직임, 즉 손과 팔의 동작 등으로 표현하고 리듬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주장하여 유리드믹스를 계발하였다. 오르프 역시 신체적인 표현과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박, 빠르기, 박자, 리듬의 개념을 신체적인 동작과 악기를 사용하여 창의적 표현을 강화시키는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다이는 초기 리듬감의 지도는 첫 단계로 박(beat)을 느껴 알도록 해야 하고 그 후로 박을 듣고 구별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기보된 악보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박자치기, 손뼉 치기, 두드리기 등은 첫 시작 단계의 음악교육방법에 유용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었다.<sup>70)</sup> 또한 코다이는 언어를 통한 리듬 지도와 음가음절들을 통한 리듬지도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리듬교육은 어린이들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피아노교육에 있어서 학습의 시작은 정확한 음정의 인지보다 리듬훈련이 선행됨이 일반적이다. 아동은 음악적 발달 특성상 선율보다는 리듬에 더 반응을 잘하며 리드미컬한 곡에 즉각적인 반응과 흥미를 보임을 알 수 있다.<sup>71)</sup>

그러므로 교사는 리듬학습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리듬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리듬 수업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

70) Stone, Margaret L, Ibid (1971), p.22.

71) 김희진, “코다이 교수법을 적용한 유아피아노 학습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8, p.19-20.

## 리듬 지도 (1 차 시)72)

1. 학습 명 : 박의 개념과 기본 리듬 알기
2. 학습목표 :  $\frac{3}{4}$ 박자의 기본 리듬, 2분할 리듬, 점음표 리듬을 읽을 수 있다.
3. 학습자료 : 리듬카드
4. 학습활동

### 1) 도입

- (1) 교사는  $\frac{3}{4}$  박자의 리듬카드를 제시하고 구음으로 부르며 리듬치기 한다.

예)



- (2) 교사는 2분할 리듬을 제시하고 구음으로 부르며 리듬치기 한다.

예)



- (3) 교사는 점음표 리듬을 제시하고 리듬치기 한다.

예)



### 2) 전개

- (1) 제시한 모든 리듬카드의 리듬을 구음으로 불러보게 한 후 손뼉으로 리듬치기를 해 보도록 한다.
- (2) 파트를 나누어서 서로 다른 리듬을 동시에 박자치기를 해 보도록 한다.

### 5. 지도상의 유의점

- $\frac{3}{4}$  박자의 리듬이 익숙해지면 다른 박자의 리듬도 접근해 본다.

72) 전혜경, 전게서, p.45.

## 리듬 지도 (2 차 시)

1. 학습명 : 리듬 익히기
2. 학습목표 : 다양한 리듬패턴을 익혀 정확한 리듬에 대한 개념을 갖도록 한다.
3. 학습자료 : 리듬카드
4. 학습활동

### 1) 도입

(1) 교사는 여러 가지 리듬형태의 패턴을 카드로 제시하며 구음으로 불러준다.

예)

따	따	따	따
-----			
따	따	따	따
-----			
따	따	따	따
-----			
따	따	따	따
-----			
따	따	따	따
-----			
따	따	따	따

(2) 제시된 리듬카드의 구음을 친숙한 단어로 바꾸어 불러준다

예)

철	수	가	앞~
-----			
집	에	심	부
-----			
다	돌	아	오
-----			
서	너	무	너
-----			
무	신	이	나
-----			
강	총	강	총
-----			
강	총	총	총
-----			
춤	을	주	머
-----			
왔	지	요	

### 2) 전개

(1) 다양한 리듬카드를 제시한 후 구음으로 불러보게 한다.

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듬 지도 (3 차 시)

1. 학습 명 : 리듬말을 적용하여 리듬 익히기
2. 학습목표 : 제시된 카드의 리듬 앞에 적당한 리듬 낱말을 붙여 읽으면서 리듬을 익힌다.
3. 학습자료 : 리듬카드
4. 학습활동

### 1) 도입

(1) 교사는 리듬카드의 리듬말을 2마디 정도 제시하여 준다.

예)

(2) 그룹의 어린이들이 각자 리듬말을 제시하여 8마디를 완성하도록 한다.

### 2) 전개

완성된 리듬을 익히어 손뼉으로 나타내 보기도 하고 순서를 바꾸어가며 리듬을 읽어 보도록 한다.

### 5. 지도상의 유의점

주어진 리듬의 패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보기도 하고 리듬을 묶어서도 ( ♩ ♩ ♩ ♩ → ♩ ♩ )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해본다.

## 4) 가창을 통한 피아노 지도<sup>73)</sup>

일반적으로 피아노 테크닉 훈련방법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기 쉬운 큰 결점 중 한 가지는 테크닉을 음악적 요소에 관계된 내용과는 상반되게 개별적으로 연습

73) 김문희, “음악교육이론을 위한 조기 피아노 교육과 그 지도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43.

하는 데에서 생기며, 이와 같은 학습 방법은 단순한 기계적 방법으로 음악적 미의 추구나 음악성 향상에는 무의미하며 피아노 학습의 능률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예술적 가치가 있는 가창을 폭넓고 다양하게 지도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으며 가창을 통한 음악미의 경험이 풍부할수록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한 악기의 테크닉 지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유아기의 아동들에게 흥미 있고 활동적인 음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창을 중심으로 기악과 감상 등을 통해서 종합적이면서도 통합적인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창을 통한 효과적인 피아노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기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효과적이다. 즉, 유아는 재미없는 노래나 악곡은 좋아하지 않으며 음이 너무 높거나 반대로 낮아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빠른 곡은 잘 부르지 못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동들은 악보의 이해력이 매우 부족하고 반주에 있어서도 복잡한 화성반주보다는 단음으로 하나 하나 짚어주어야 잘 알아듣는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노래를 하면 실증을 느끼게 되며 음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며 리듬감도 부족하다. 따라서 유아에게 피아노지도할 때에는 위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잠재적인 음악적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자인 달크로즈는 음절로 노래 부르는 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솔페지(Solfege)로 노래 부르는 것이 듣는 능력과 음형을 기억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준다고 생각했다. 내청 즉, 마음속에 음을 상상하는 능력이 강조되어 달크로즈는 학급의 학생들은 음정을 노래하고 가창은 계명(syllable)으로 부른다. 노래 도중에 몇 마디는 소리 내어 부르고 몇 마디는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부르게 한다.<sup>74)</sup>

또한 달크로즈는 피아노의 기초 단계에서 즉흥적인 형태로 창조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창조성 지도는 초기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종류와 원칙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만 본래의 자유로운 표현 요소들을 구속해서는 안되며 단순한 기계적 테크닉의 연습을 통해서 창조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창을 통해서

74) 찰스 R 호퍼(Hoffer, Charles R), 안미자역, 전게서, 1987, p.154.

상상한 음을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소리로 표현시키는 것은 창조성과 세련된 음감을 육성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요약하자면 가창은 가창이라는 그 본래의 근본적인 목적이외에 창조성 개발이라든가 피아노지도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가창곡을 선정하여 테크닉의 습득과 독보력 신장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피아노 조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5) 타악기를 이용한 피아노 지도<sup>75)</sup>

타악기는 모든 분류의 악기 중에서 가장 단순한 구조로 되어 음향도 매우 단조롭다. 이것은 원래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를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한다. 또한, 물체의 성질은 물론 구조와 크기에 따라 음향의 성질이 다르고 또, 대개의 사람들이 소음(noise)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음악에 이용한다면 우리는 모두 이것을 타악기라고 볼 수 있다.

아동들에게 피아노를 지도할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기능적인 면에 너무 치우치게 되어 아동 스스로가 음악에 대한 욕구와 흥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테크닉 면을 소홀히 하면 유아기는 상당히 빠르게 손 근육기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테크닉을 이용한 음악성과 창조성의 표현에 있어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아노의 테크닉 지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을 접목시켜 피아노를 지도한다면 테크닉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과 피아노에 대한 흥미 역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악기에 있어서는 유아기의 아동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악기라야 효과적인데 사실 가락 악기 즉, 리코더 같은 것은 초등학교 취학 아동일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는 유아들에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타악기는 유아기의 아동들이 쉽게 연주할 수 있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피아노 교육에 매우 효과적이다.

---

75) 노영순, 전계서, p.83.

## 6) 감상 지도

감상은 작품의 연주를 통해서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음악의 연주를 듣고 마음속에서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감상을 통한 교육은 자발적으로 음악을 듣고자 하는 적극적이면서도 심미적인 태도와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은 감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로서의 감상이란 스스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가락을 짓고 하는 표현 학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감상교육은 같은 아동기 아동들의 실제 연주와 교사의 시범연주를 통해 하게 되는 것이 레코드나 실제 전문연주자의 연주회를 통해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감상곡의 선정시 아동들의 연령과 음악적 능력의 수준 정도를 고려하여 음악의 생활화에 도움이 되고 예술적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는 곡을 선택하여 가창을 통한 실음을 바탕으로 한 연주의 감상을 통해 아동들에게 있어 음악적 감각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새로운 곡을 선택하여 지도할 때에는 지도 전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레코드를 이용하거나 교사의 시범연주를 통한 청취를 통해 피아노 연습전 곡에 대한 이해력과 해석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다. 그리고 2~3일이나 일주일에만 한번 정도는 같은 또래나 수준의 아동들에게 레코드나 상황이 허락된다면 VTR 등을 이용하여 감상하게 하고 간단하게나마 느낌을 주고 받는 기회를 연다.

## 7) 청음 · 시창학습을 통한 피아노 지도

음악의 지식은 듣는 것에서부터 온다. 음악을 지각적으로 듣는 것은 음악적 개념습득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음악활동이다. 따라서 모든 음악적 행위는 소리를 듣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가창학습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창작학습도 창조적 표현행위만이 아닌 자신이 만든 음악을 실제 소리로 전환시켜 청각적으로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sup>76)</sup>



스즈키는 처음 레슨을 시작하기 수주일전부터 앞으로 배울 곡을 매일 듣도록 한 후 악보를 보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머셀의 음악은 사람을 음악적으로 만드는 것 즉 듣는 일에 대한 감각과 지각 및 청각이미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독특한 조직이라고 말하며 음악교육은 청각교육, 즉 듣는 법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77)</sup>

따라서 아동의 청음감각을 키우기 위한 지도는 즉 리듬, 멜로디, 화성의 기본적인 종류를 분류하여 체계적인 청음교육이 필요한데 청음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78)</sup>

- (1) 리듬청음 - 1박 단위로 들으며 단순박자에서 점차 복합박자, 변박자로 가며 리듬만 듣고 적기
- (2) 음고청음 - 음의 높고 낮은음 듣고 적기
- (3) 선율청음 - 박자에 의한 리듬으로 멜로디를 듣고 적기
- (4) 화음청음 - 장조, 단조에 포함되는 주요 3화음 듣고 적기
- (5) 음색청음 - 각 악기 특성의 음 빛깔을 가려내어 적기

이와 같은 음악의 기본요소를 중심으로 어린이에게 적합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1) 리듬청음
  - ① 리듬감각은 가사, 노래 및 동작을 통하여 지도한다.
  - ② 3/4과 4/4 박자의 센박을 구별시킨다. (센박과 여린박은 어린이가 일찍이 분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 ③ 리듬을 듣고 그대로 친다.
  - ④ 리듬을 듣고 리듬을 적는다.
- (2) 음고청음
  - ① 높고 낮은 음의 개념은 비교개념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혼돈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계’와 ‘여리게’의 개념을 완전하게 가르친다.
  - ② 간단한 노래의조를 바꾸어서 부르므로 조 변화를 느끼게 하며 음고를 느

76) 석문주(1996), 전계서, P.18.

77) 이미영, “유아기의 청음지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7, P.7.

78) 한윤희, “청음교육의 중요성과 유아기의 적합한 지도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7, pp.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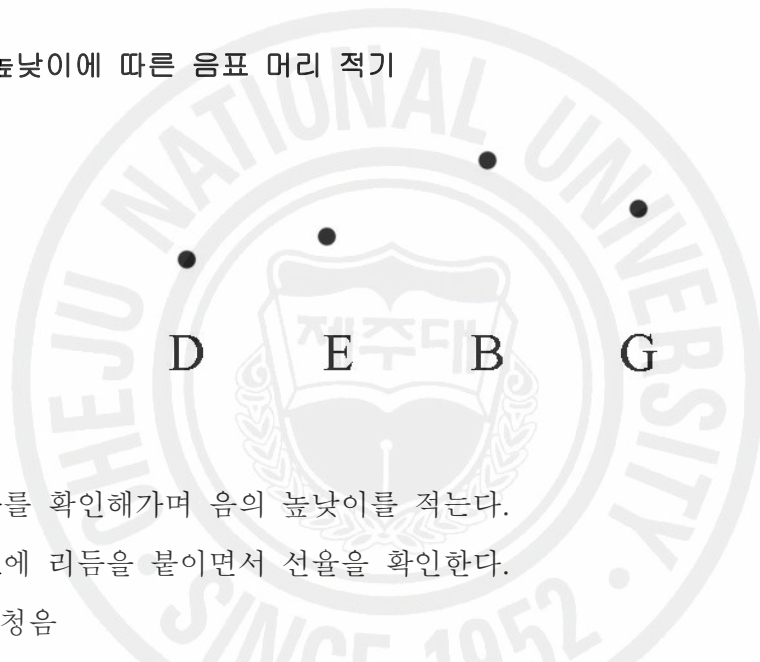
껴보게 한다.

- ③ 노래한 곡 중에서 가장 높은 음정이 무엇이고 가장 낮은 음정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3) 선율청음

- ① 높고 낮은 음의 개념이 확실히 인식되면 올라가는 음과 내려가는 음을 느끼게 한다.
- ② 한음을 기준으로 높은 소리인지 낮은 소리인지 알게 한다.
- ③ 연속적인 음을 듣고 높낮이를 음표의 머리만으로 적는다.

그림5. 높낮이에 따른 음표 머리 적기



- ④ 박자를 확인해가며 음의 높낮이를 적는다.
- ⑤ 음표에 리듬을 붙이면서 선율을 확인한다.

(4) 화음청음

- ① 한음에 3도위의 소리를 들어본다. 3도로 이루어진 노래를 부른다.
- ② 이와 같이 음정간격을 변화시키면서 귀로 익힌다. 즉, 각 화음의 인상을 심어준다.
- ③ 각 화음의 인상을 잘 듣고 반응을 한다.(화음의 각 인상을 상징적인 기초로 만들어서 인식시킴)

이러한 청음훈련 방법과 부르기 쉬운 동요를 청각훈련을 하게 한 후 피아노를 치게 하는 방법은 청각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교사는 청음지도를 할 때 학생이 자신의 귀로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하며 도와주어야

한다.

시창과 청음은 불가분의 관계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음을 들어야 노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노래를 불러봄으로써 그 음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능력으로써 음을 보고 소리 낼 줄 알아야 하고 들어서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시창과 청음은 같이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바람직하다.<sup>79)</sup>

시창은 음정과 리듬을 바르게 습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시창으로 소리에 대한 감각이 길러지면 노래는 몸을 통해 직접 소리를 내기 때문에 노래할 때 학생들은 스타카토, 레가토, 이음줄, 악센트등의 차이점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차이점을 분명히 느끼고 건반에서 연주하게 되면 그 소리에 의미가 담겨지게 될 것이다. 또한 시창을 함으로써 리듬에 대한 개념도 더욱 확실해질 것이며 노래할 때 음과 음사이의 높낮이를 느낌으로써 음정관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노래를 하면서 어디서 숨을 쉬는지 파악을 하면서 프레이징 감각을 키워주게 될 것이다.<sup>80)</sup>

시창을 위한 훈련에는 두 가지 훈련이 학습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리듬 공부이며 둘째는 음높이 공부라 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의 훈련은 완벽하게 시창연습을 통하여서 학습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창의 올바른 학습은 피아노 교육의 단편적 교육이 아니라 포괄적인 음악교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79) 윤화경, 전제서, p.31.

80) 한윤희, “청음교육의 중요성과 유아기의 적합한 지도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7, p.11-13.

## IV. 결 론

아동기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면서 많은 아동들이 음악학습의 첫 입문을 피아노로 선택하는 이유는 피아노가 보다 기초적이고 종합적이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조기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아노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감수성이 가장 민감한 아동기에 지능개발과 함께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아동들의 정신과 신체적 성장에 자극하는 것이 인격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즉, 전인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이다.

본 논문에서 조기 피아노 교육의 필요성과 피아노 학습의 목적, 음악 교육가들의 음악교육방법, 기초교육방법연구에서 교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 피아노 학습장의 시설과 환경, 피아노 교육을 위한 학습내용 등으로 알아보았다.

따라서 피아노를 통한 음악교육이 올바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피아노 교육을 테크닉 지도에만 한정하지 말고, 음악적 욕구와 미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며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아동의 피아노 지도 시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이용한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모색한다면 전인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음악가나 연구가로서의 기초적 자질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사는 아동의 심리적인 면과 음악적 발달 능력을 파악하여 개성에 적합하고 흥미를 줄 수 있는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교사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교사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포괄적인 음악향상을 위해 다양한 음악활동 즉, 리듬학습, 가창, 타악기를 이용한 피아노지도, 감상지도, 청음, 시창 등을 접목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 「아동기 피아노 교육의 효율적인 방법연구」의 연구를 통하여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피아노 교육을 위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첫째, 피아노 교육은 아동의 개성과 능력에 맞게 지도되어야 한다.

어린이의 성장발육이나 음악에 대한 반응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에 따른 적절한 교육방법을 연구하여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지도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우선,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대하여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학습지도에 임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에 임하는 태도 및 교육관,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교육이전에 정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필수요인이다. 왜냐하면 교사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비로소 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창의적인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피아노를 쳐보게 하고 교습환경과 가정의 음악적 환경이 잘 연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음악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인적인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피아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자신감을 길러주어야 한다. 흥미를 잃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며, 꾸지람보다는 칭찬으로써 자신감을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하여야 하며 음악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피아노 교육이어야 한다.

음악은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주고 인간이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은 전문적인 음악가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의 자질향상에 기여하여 그들이 정서적으로 풍부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섯째, 학부모님들의 적절한 기대가 필요하다.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심리나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자녀의 자질을 고려하여 스스로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이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까지 행해졌던 교육이 교사의 경험에만 의존하였던 일방적인 교수법이었다거나 단순히 악보만 읽으며 손놀림이 능숙하게 될 때까지 반복하는 단순 기능 위주의 교수법이였다면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내적인 음악성과 외적인 훈련을 겸한 지도 방법을 통해서 아동들의 포괄적인 음악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수법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아노 음악교육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음악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 행 본 >

- 길애경 외, 「초등음악 지도법」, 서울 :수문당, 1996.
- 박찬석, 「올바른 피아노 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
- 박찬석, 「피아노 교수학」,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 송정미,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서울: 음악춘추사, 1986.
- 안재진, 「유아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6.
- 양용철 외 7명, 「교육학 개론」, 중앙적성출판사, 1997.
- 오숙경, 「Orff와 Kodaly 음악교육 이념의 비교고찰」, 서울: 형설출판사, 1973.
- 유기섭, 「교육심리학」, 서울: 동문사, 1993.
- 이용일, 「음악교육학 개설」, 서울: 현대악보출판사, 1989.
-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 Camp, Max W, 안미자 역, 「피아노 연주법」, 서울 : 이화여대출판부, 1995.
- Hoffer, Charles R, 안미자 역, 「음악교육론」,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89.
- Machlis, Joseph, 신금선 역, 「음악의 즐거움(상)」, 이화여대출판부, 1982.
- Roland Mackamul, 「청음과 시창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음악춘추사, 1985.

### < 논 문 >

- 김문희(2002), “음악교육이론을 위한 조기피아노 교육과 그 지도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은영(2000), “조기피아노 교육을 위한 올바른 지도 방법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노영순(2003), “아동기 피아노 학습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윤화경(1998), “피아노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지도방향”,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 이미영(1997), “유아기의 청음지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 전혜경(2000), “아동기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피아노 교육방법에 관한 방향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 정윤숙(1986), “조기(早期) 피아노교육의 효율적(效率的)인 지도방안”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진미(1988), “피아노 초기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 한윤희(1997), “청음교육의 중요성과 유아기의 적합한 지도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허순식(1998), “음악성 개발을 위한 기초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 허은진(2004), “아동기 초기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정기 간행물 >

- 방금주, 「어린이 피아노 교육의 목표」, 음악교육, 1986.
- 범영숙,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육」, 삼호뮤직, 2003.
- 성진희, 「음악을 배우며 즐거움을 얻는 건반 경험 프로그램」, 음악교육, 1994, 5월호.



<summary>

## **A Study on Efficient Methodology of Piano Education in Childhood**

Hwang, Jae-ok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im, Hee-jung

The goal of music education lies in leading a rich life with emotions purified and musicality developed by aesthetic musical experiences. Especially, music education in childhood, in which children's growth becomes rapid, and the basis for forming artistic talents and harmonious personality is established,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Thus, we should help children discover their potential musical talents through correct methodology of music education in childhood, and hence this paper tries to help one to lead children to develop and feel their talents by themselves.

This study has presented the importance of the piano education in childhood by quoting the relevant literature. It consists of the necessity of early education of the piano and the goals for piano learning, educational methods of music by music educators and the role of a teacher in the study of basic educational methods, the role of parents, facilities and environments of piano learning places, and learning contents for piano educatio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For one thing, this study limits itself to children with ages ranging from 6 to 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deals with the level concentrating on beginners. This is because 6-7 year old children are able to remember sounds with their conspicuous cognitive development, and children in general should be well-trained in basic education rather than in genuine learning so that they can cultivate themselves for subsequent learning.

This study presents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teaching method that intends to develop children's extensive musical talents through an instructive method with both individual children's musicality and external trainings, escaping from the education so far, in which teachers depend only on their own experiences or on monotonous function-concentrated teaching methods that make children simply read musical notes and repeat playing until they adapt their fingers to them.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constantly study and develop various learning programs for piano education,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Hopefully, I expect that through this study, practical piano education will be carried out in a more efficient way in music education scenes.